

한국대학생의 주제통각검사(TAT) 반응

홍 창 희

전남대학교

박 진 희[†]

제주지방법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TAT(Thematic Apperception Test; 이하 TAT)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83명을 대상으로 1, 2, 3BM, 4, 6BM, 7GF, 8BM, 10, 11, 14의 10개 TAT 도판을 실시하였다. 실시된 각 도판의 반응을 주제 분석(Patton, 2002) 하였고, TAT 반응의 분류과정에서 두 연구자 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kappa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평정자간 kappa계수의 범위는 0.6~1.0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았다. 각 도판별 주제는 주인공, 성취욕구, 주요 정서, 이야기의 결과 그리고 죽음의 빈도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0개 도판에서 한국대학생의 TAT 공통주제가 나타났다. 일부 도판(3BM, 7GF)의 경우 인물들의 관계나 지각에 있어서 미국인의 TAT 주제(Stein, 1981)와 다소의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도판에서 드러난 주제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시기나 대상이 다른 한국대학생에 있어서 심리검사도구로서 TAT의 적용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추후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며,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검사, TAT, 주제 분석, 일치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진희 / (63223)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남광북 5길 3
E-mail : jini9219@gmail.com

임상심리학자의 활동 중 심리치료와 심리진단 및 심리평가의 비율은 약 70%정도로 나타났다(권정혜, 2008). 심리평가란 개인의 인지기능이나 적성 및 성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는 개인이 경험하는 부적응 문제와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진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김재환 등, 2015). 심리평가의 기본요소인 심리검사 중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이하 TAT)는 공상 연구의 방법으로 소개된 이래(Morgan & Murray, 1935)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선호하는 검사 중 하나이다(Frey, 2003).

임상현장에서 TAT는 검사배터리의 하나로 실시되며, 피검자에게 애매한 검사자극을 제시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이다. 피검자는 검사자극의 해석과정에서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에 자신의 성격을 투사하게 된다(Moretti & Rossini, 2004; Stein, 1999). 따라서 TAT는 자신이나 타인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데 효율적인 검사로 간주된다. Bellak(1993)은 TAT를 통해 대인관계와 환경지각에서 나타나는 성격의 역동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TAT 반응에는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충동, 욕구, 방어, 동기, 대인관계 태도 및 지각 등이 나타나고 있어서(Alvarado, 1994; Karon, 1982; Murray, 1963), 치료자가 심리상담이나 치료과정의 초기에 내담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담자와 치료자 간 치료동맹을 향상시키는 치료적 접근으로서 TAT는 내담자의 역제를 감소시키고 자발적 노출을 증가시켜 치료와 관련된 임상적 자료의 노출을 자극해, 궁극적으로 상담자나 치료자는 TAT를 통해 내담자의 주관적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rcheon, 2010).

이러한 유용성으로 TAT는 임상심리학 및 정신건강과 영역에서 사고장애의 평가와 적합한 치료형태의 선택 그리고 치료효과의 평가에 활용되고, 다문화적 상담맥락에서는 내담자의 독특한 경험에 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관련 직무에서는 지원자 선별이나 적격성여부의 평가에, 그리고 개인의 성취욕구, 적대감과 공격성, 대상관계 등 성격의 구체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 영역에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최근 들어 채점체계나 기준 등의 이유로 투사적 검사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Miller, 2007). 이는 TAT의 출발이 억압 등의 정신분석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어서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지의 타당도 문제와 함께 피검자가 제공하는 이야기의 표준화된 해석이 어렵다는 신뢰도의 문제 등이 그 이유이다. 또한 1930년대에 제작된 TAT 도판의 주인공이나 배경 등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피검자와 검사자극간의 문화적 또는 심리사회적인 거리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Holmstrom, Silber, & Karp, 1990).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원래의 TAT 도판(Murray, 1943)을 사진으로 바꾸어 자극과 관련된 문제를 알아 본 결과, 원래의 TAT가 사진으로 새롭게 구성한 TAT보다 더 구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시간과 관련된 반응을 더 많이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Narron, 2005).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시대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심리평가영역에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TAT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면적 인성검사(MMPI), 웨슬러 지능검사(WAIS), 로샤(Rorschach)검사와 함께 사용빈도가 높은 검사이며(Groath-Marnat, 2009),

때로 투사적 검사 중 가장 선호되는 검사로 나타나기도 한다(Watkins, Campbell, Nieberding, & Hallmark, 1995).

TAT는 유럽계 미국인을 배경으로 개발되었고 자료 해석은 언어적 이야기(verbal narrative)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적 이야기는 개인이 속한 문화, 종교,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신념 또는 경험하는 고통의 표현성 등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Dana, 2005). 따라서 언어적 이야기에 기초하는 TAT를 다양한 집단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의 문화권에서 구성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문화 차이를 극복해 보고자 개발 당시의 TAT 원판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인물 이미지를 도판의 인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국판 TAT, 스페인판 TAT 등이 그 예로 문화권에 맞게 개작하여 사용하였지만 기준이나 채점범주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았다(Groath-Marnat, 2009). 이야기 구성검사인 TEMAS(Tell-Me-A-Story; Costantino, 2007)나 Roberts-2(Roberts, 2006)를 제외하고서는 구체적인 문화적 기준이나 도판의 이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상적으로 검사의 기준은 피검자의 교육이나 문화적응수준을 고려하고 관련된 집단구성원의 참여로 개발되어야 하며, 해석의 경우도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화에 따라 자기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은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Markus & Kitayama, 1991).

임상 및 상담심리학 분야의 많은 이론가들은 자기지각(self awareness)이 상담자나 정신건강전문가의 중요한 특질임을 언급하고 있다

(Corey, 1991). 자기지각은 상담자나 치료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선호와 반응을 의식적으로 제쳐두고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고자 하는 선행조건을 말한다(MacCluski 2012; 홍창희, 이숙자, 정정화, 정민 공역, 2012). 최근 다문화주의와 상담의 다양성 관점에서 자기지각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 내 자신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각, 더불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민감성과 포용력을 개발하는 것은 상담이나 치료에 있어서 다문화적 유능성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고려점이다. 우리사회 또한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시점에서 검사 반응에서 드러나는 이야기가 개인의 독특한 성격특징을 보여주는지 혹은 그 개인이 성장한 일반적인 문화적 신념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TAT와 관련해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로사검사 등 다른 투사적 검사와 함께 종합심리검사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지만 TAT에 관한 경험적, 체계적인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 주제통각검사 혹은 TAT를 주제로 지금까지 약 60여 년 동안 성격,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분야의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등을 검색해 본 결과(국회도서관: 1950년~2016년), 학술지 4편(김순애, 1970; 신동균, 1989, 한기수, 1961; 황응연과 강광규, 1954), 학위논문 2편(김도연, 2002; 김금란, 2002)이 검색되는데 더구나 학위논문의 경우는 TAT의 활용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TAT는 개인의 생활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원래 백인 중류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도구로서 피검자의 문화적 경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TAT를

포함한 투사검사는 개인의 정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인종과 문화적 차이 등 비교문화적 맥락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Retif, 1987). 한 예로 미국과 일본 피검자를 대상으로 도판1의 반응을 비교한 연구(DeVos & Vaughn, 1992) 결과, 두 피검자집단 간 반응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T의 중국판(TAT-RC)을 활용한 연구도 있다(Zhang et al., 1993). 이 연구에서는 2000명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반응을 분석하고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TAT-RC가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밝혔지만 문화적으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오랜 기간의 연구(예, Shentoub, 1973, 1981, 1990; Si Moussi, 1990) 결과, Murray의 전통적인 욕구-압력 접근이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연구에 기초해 종합적인 체크목록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기도 한다. 이 연구들 또한 비교문화적 연구는 아니나, 적어도 문화적 배경에 따른 TAT반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문화에 맞는 TAT의 연구와 유용성에 관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상담 및 임상장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개인들과 작업하는 전문가는 개인의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도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도구의 하나로서 TAT의 경우 그동안 연구 및 임상적 활용을 위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은 참으로 무심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TAT연구의 불모 상황에서 문화적 시대적 차이를 알아보는 비교문화적 연구나 코호트의 연구가 아닌, TAT 반응주체의 탐색적 연구이며 동시에 추후 연구를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하겠다. 즉 추후 연구를 위한 TAT 검사자극의 반응을 알아보는 최소한의 경험적 연구의 시도이다.

요약하면, TAT반응에는 개인의 사고 내용이나 삶 속의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고 이러한 개인의 사고나 삶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야기의 분석에 근거하는 TA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사자극에 관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TAT가 그동안 알려져 있는 주제와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임상적으로 활용하는데 타당하고 유용한 검사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피검자의 TAT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를 일본 대학생의 TAT 주제(Gray, 1998) 그리고 미국인의 TAT 주제(Stein, 1981)와 비교하였다. 이 세 연구는 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다른 각각 독립적인 연구이며 단순비교를 위해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 중인 대학생 83명(남 37명; 44.6%, 여 46명; 55.4%, 1학년 24명(28.9%) 2학년 24명(28.9%) 3학년 22명(26.5%) 4학년 13명(15.7%) 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95세(표준편차=1.92, 범위= 20~26세)였다.

연구도구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

TAT(Murray & Morgan, 1935)는 흰색과 검은색의 31장의 도판(Murray, 1943)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하나는 백지이다. 각 도판의

뒷면에는 도판을 선정할 때 고려할 남자(M)와 여자(F), 소년(B)과 소녀(G)의 성과 연령 구별이 제시되어 있다. 검사는 보통 20장의 도판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1회시 일상생활의 장면을 담고 있는 10장을 실시하고 이어 조금은 비일상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나머지 10장을 실시한다(Bellak & Abrams, 1997).

본 연구에서는 남녀노소의 성과 연령을 구분해 사용하는 임상 적용과는 달리 대학생 대상의 주제 탐색이 연구목적으로 성별 구분 없이 Gray(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판 10개(1, 2, 3BM, 4, 6BM, 7GF, 8BM, 10, 11, 14)를 선정하였다. TAT 도판의 제시순서는 순서대로 제시하여 10장의 도판을 모두 실시하였고, 집단 검사를 위해 파워포인트자료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대학의 강의실에서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소개하고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연구 참여 동의서, 검사반응 기록지,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에게 TAT 연구에 참여할 의향을 파악한 후 동의서를 받고, 협조와 성실한 반응을 얻기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반응기록지는 A4용지 6쪽 분량으로 페이지 당 도판 2장에 대한 응답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각 도판별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1) 그림에 나타난 장면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기분은 어떻게 됩니까, 3)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단검사를 위하여 10장의 도판을 스캔 작업한 후 파워포인트로 구성하여 3 x 4m의 스크

린에 제시하였고, 첫 화면은 검사안내에 관한 지문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이야기를 만드는 검사입니다. 몇 장의 그림을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되도록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각 그림을 보고 상상한 것을 반응기록지에 기록하면 됩니다(이상로, 변창진, 김경린, 1973; Stein, 1981)”. 반응시간은 도판 1장당 평균 5분 정도로 총 소요시간이 60분 정도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피검자의 TAT반응으로부터 얻어진 이야기를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반응기록지에 기술된 이야기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 Patton, 2002)을 사용하였다. 주제 분석은 자료 안의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는 범주와 주제를 밝히고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드러나는 주제와 패턴이 연구자의 사전 가정이나 이론의 영향보다는 자료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는 질적 기법이다(Bogdan & Biklen, 2003). 국내의 TAT에 관한 연구의 부재로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나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적절하다고 여겨 주제 분석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두 연구자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를 파악하였다. 개별 이야기의 분석 시 이야기의 세부와 복잡성에 따라 많은 의미단위와 하위범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AT자료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 주인공 중심법(이상로 등, 1973; Schneidman, 1951)의 요구압력분석법(Murray, 1943; Stein, 1981)에 근거하였다. 연구

자들은 각 도판별 반응기록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미단위를 찾아내고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서 하위범주를 형성하고, 하위범주들을 묶어 범주로 통합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 과정에서 두 연구자 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kappa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Strauss & Corbin, 1994). 이는 TAT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각각의 TAT 도판에서 각기 다른 주제가 도출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 도판에서 평가된 점수와 다른 도판에서 평가된 점수와의 일치도가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은 각 도판의 평정자간 일치(inter-rater agreement)를 알아보는 것이라는 Cramer(1998)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일치적으로 두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반응을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분류하는 하위범주단계와, 하위범주단계의 결과를 범주 간 논리적 연결성에 근거하여 자료를 재구성하고 축약한 이후 범주단계에서의 일치도 수준을 산출하였다. 최종 주제의 선정은 각 도판에 대해 동일한 주제를 사용하여 단순 비교를 위해 Stein(1981)의 일곱 가지 주제 중 Gray(1998)의 분류 주제와 일치하는 다섯 가지 주제를 사용하였다(주인공, 목표성취, 주요 정서, 결과, 죽음).

결 과

평가자간 신뢰도

연구대상자의 TAT 반응을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분류한 하위범주단계의 결과를 논리적 연결성에 근거하여 자료를 재구성하고 축약하여 범주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각 도판에 따른 각각의 범주에

대해 평정자간 신뢰도인 Cohen의 kappa계수의 범위는 0.6~1.0으로 비교적 높게(Altman, 1991) 나타났다(표 2 참조).

주제 및 범주

연구대상자의 TAT 반응에서 도출된 주인공, 목표성취, 주요 정서, 결과 및 죽음의 다섯 가지 주제와 그 범주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제 및 범주

주제	범주
일차적 관계	어머니와 딸(아들)
	아버지와 아들
	(외)할머니와 손자
	부부
	친구
주 인 공	귀부인과 하인
	가정부와 주인집 아들
	유모와 주인집 딸
	스승과 제자, 가정교사와 학생
	회사 동료, 상사와 부하
이차적 관계	애인
	남성과 윤락여성
	목표를 이룸
	성공하지 못함
	타협이나 절충적 문제해결
목 표 성 취	분명한 목표 없음
	목표달성 여부 모름
	긍정
주요 정서	중립
	부정

표 1. 주제 및 범주 (계속) 한국대학생의 도판 별 TAT 주제

결 과	행복한 결말
	불행한 결말
	극적인 결말
	평범한 결말
	결과 언급되지 않음
죽 음	살인
	사고사
	자살이나 자살충동
	질병
	다수의 죽음
	부검상황, 생체실험
	수술, 불법시술
납치	

먼저 각 도판에 대한 설명(Murray, 1943)과 흔히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야기(Stein, 1981)를 기술하였다. 이어 각 도판별로 도출된 주제의 한국과 일본대학생의 연구결과(Gray, 1998), 그리고 한국대학생의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한국대학생과 일본대학생의 주요 범주별 빈도 및 평가자간 일치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도판 1

한 소년이 바이올린 앞에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다(Murray, 1943). 이 도판에는 흔히 소년이 부모에 의해 바이올린을 공부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이야기와 학습, 성취 및 포부의 주제가 나타난다(Stein, 1981).

표 2. 범주별 빈도 및 평정자간 일치도

도판	주제	범주	한국대학생		일본대학생		일치도 k
			n(=83)	%	n(=60)	%	
도판 1	목표성취	주인공이 목표를 이룸	44	53.0	35	58.3	0.84
		주인공이 성공하지 못함	4	4.8	14	23.4	
		타협이나 절충해 문제해결	19	22.9	4	6.7	
		분명한 목표 없음	6	7.2	2	3.3	
		목표 달성 여부 모름	10	12.0	5	8.3	
도판 2	목표성취	주인공이 목표를 이룸	28	33.7	28	46.7	0.87
		주인공이 성공하지 못함	10	12.0	20	33.3	
		타협이나 절충해 문제해결	1	1.2	2	3.3	
		분명한 목표 없음	44	53.0	7	11.7	
		목표 달성 여부 모름	0	0	3	5.0	
	결과	행복한 결말	34	41.0	32	53.3	0.89
		불행한 결말	10	12.0	20	33.4	
		극적인 결말	4	4.8	3	5.0	
		평범한 결말	33	39.7	5	8.3	
		결말 제시되지 않음	2	2.4	0	0	

표 2. 범주별 빈도 및 평정자간 일치도

(계속 1)

도판	주제	범주	한국대학생		일본대학생		일치도 k
			n(=83)	%	n(=60)	%	
도판3BM	주요정서	긍정적	4	4.8	18	30.0	0.71
		부정적	63	75.9	36	60.0	
		중립적	16	19.2	6	10.0	
	죽음	죽음과 관련 없음	58	69.8	41	68.3	0.95
		자살/자살충동	14	16.8	0	0	
		사고로 죽음	9	10.8	7	11.7	
다수의 죽음		2	2.4	3	5.0		
도판 4	주요정서	긍정적	5	6.0	15	25.0	0.69
		부정적	78	93.9	45	75.0	
	결과	행복한 결말	34	40.9	29	48.3	0.60
		불행한 결말	35	42.1	23	38.3	
		극적인 결말	2	2.4	7	11.7	
		도덕적 결말	8	9.6	1	1.7	
	결말 제시되지 않음	4	4.8	0	0		
도판6BM	주요정서	긍정적	4	4.8	10	16.7	1.00
		부정적	79	95.1	48	80.0	
	주인공	어머니와 아들	49	59.0	54	90.0	1.00
		(외)할머니와 손자	6	7.2	5	8.3	
		귀부인과 하인	5	6.0	0	0	
		가정부와 집주인의 아들	6	7.2	0	0	
		기타	17	20.4	1	1.7	
	조언	조언 구함	24	28.9	15	25.0	0.65
		조언 없음	41	49.3	45	75.0	
소식 전함		18	21.6	30	0		
도판7GF	주인공	어머니와 딸	53	63.8	43	71.7	1.00
		유모와 주인집 딸	20	24.0	10	16.7	
		가정교사와 학생	6	7.2	4	6.7	
		기타	4	4.8	1	1.7	
	주요정서	긍정적	10	12.0	13	21.7	0.78
		부정적	67	80.7	45	75.0	
중립적		6	7.2	2	3.3		

표 2. 범주별 빈도 및 평정자간 일치도

(계속 2)

도판	주제	범주	한국대학생		일본대학생		일치도 k
			n(=83)	%	n(=60)	%	
도판8BM	죽음	살인	15	18.0	13	21.6	0.97
		사고사	3	3.6	4	6.7	
		죽음과 관련 없음	23	27.7	28	46.7	
		부검 및 생체실험	13	15.6	0	0	
		수술 및 불법시술	27	32.5	0	0	
		납치	2	2.4	0	0	
도판 10	주요정서	긍정적	42	50.6	23	38.3	0.64
		부정적	41	49.3	37	61.7	
	결과	행복한 결말	62	74.6	36	60.0	0.66
		불행한 결말	13	15.6	7	11.7	
		극적인 결말	4	4.8	12	20.0	
		결말 언급되지 않음	4	4.8	5	8.3	
도판 11	목표성취	주인공이 목표를 이룸	15	18.0	42	70.0	0.61
		주인공이 성공하지 못함	1	1.2	8	13.3	
		분명한 목표 없음	65	78.3	3	5.0	
		목표 달성 여부 모름	2	2.4	7	11.7	
	결과	행복한 결말	39	46.9	37	61.7	0.84
		불행한 결말	17	20.4	5	8.3	
극적인 결말		13	15.6	4	6.7		
도덕적 결말		3	3.6	14	23.3		
	결말 언급되지 않음	11	13.2	0	0		
도판 14	주요정서	긍정적	31	37.3	25	41.7	0.80
		부정적	42	50.6	34	56.7	
		중립적	10	12.0	1	1.6	
	죽음	살인	1	1.2	3	5.0	1.00
		자살	14	16.8	4	6.7	
		자연사(질병포함)	1	1.2	9	15.0	
		죽음 언급되지 않음	67	80.7	40	66.6	
	결과	행복한 결말	25	30.1	41	68.3	0.87
		불행한 결말	12	14.5	11	18.3	
		평범한 결말	32	38.6	6	10.0	
결말 언급되지 않음		14	16.9	2	3.3		

목표 성취

한국대학생의 도판 1에 대한 반응은 소년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하거나 능력을 인정받는다라는 주인공의 목표 성취 내용이 총 83사례 중에서 44사례(53%)였다. 주인공이 노력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4사례(4.8%), 그리고 부모의 권유로 바이올린을 배우기로 했거나 혹은 자신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지만 부모의 권유로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타협이나 절충을 통한 문제해결의 경우는 19사례(22.9%) 등이었다. 일본대학생(Gray, 1998)의 경우에서도 주인공의 목표 성취의 내용이 총 60 사례 중에서 35사례(58.3%)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국인(Stein, 1981)과 일본대학생(Gray, 1998) 및 한국대학생 간 근본적인 반응의 차이는 없어 보이며, 도판 1은 세 집단에서 모두 성취와 관련된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시 1: 이 소년은 바이올린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른 다음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막상 실력은 형편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아이는 어떻게 하면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아이는 바이올린 연습을 더욱 많이 하여 결국 세계에서 알아주는 바이올린 연주가가 될 것이다.(대학생 38)

예시2: 바이올린 켜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고 부모님께 조르고 바이올린 연습을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잘 되지 않는 바이올린을 보면서 왜 잘 켜지지 않을까 열심히 하는데 왜 되지 않을까 하여 돌아보기도 하고 자책하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집중해서 날마다

연습하고 새로운 것을 켜보기도 해서 다시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해서 유명한 바이올린리스트가 되는 최고의 보상을 받는다.(대학생 42)

도판 2

시골 풍경으로 한 젊은 여인이 손에 책을 들고 뒤에는 한 남자가 일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부인이 나무에 기대어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Murray, 1943). 이 도판에서는 주인공의 자립이나 야망 등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별 등의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언급된다(Stein, 1981).

목표 성취/결과

한국대학생의 반응은 책을 든 여성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해서 꿈(예, 선생님, 소설가, 의사 등)을 이루어 돌아오거나 직장을 얻는다는 내용 또는 여성이 남성과 사랑에 빠져 어머니가 반대했지만 결국 결혼에 성공한다는 내용 등 가족관계의 이야기가 나타났다. 주인공의 목표 성취가 28사례(33.7%), 목표를 이루지 못함은 10사례(12.0%),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44사례(53%)였다. 일본대학생(Gray, 1998)의 경우 주인공의 목표 성취가 거의 절반(46.7%)을 차지하고 있어서(Gray, 1998), 한국대학생의 경우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다.

결과에 있어서는, 주인공이 꿈을 이루어 만족스러운 삶이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는 행복한 결말이 41%(일본대학생 53%), 여성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교회에 간다는 평범한 결말은 40%(일본대학생 8.3%)로 평범한 결말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다.

예시 1: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틈틈이 공부해가고 있지만 집안사정과 부모님의 고된 모습에 갈등을 겪고 있다. 가난한 집 안형편에서 선생님을 꿈꾸는 딸이 자신의 꿈을 접어야 되나 하는 현실적 경제문제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에 기분이 쳐지고 신세한탄을 하는 것 같다. 결국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된 딸이 부모님이 계신 지역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대학생 27)

도판 3BM

한 소년이 의자에 기대어 머리를 파묻고 주저앉아 있으며 그 옆에는 권총이 놓여있다(Murray, 1943). 이 도판에서는 실패, 우울, 낙담, 자살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난다(Stein, 1981).

주요 정서/죽음

주인공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실연을 당했거나 학교생활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괴로운 일로 힘들어하는 혹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낙담이나 우울 등의 주제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주를 이루고(63사례; 75.9%), 중립적(16사례; 19.3%), 긍정적 정서(4사례; 4.8%) 순으로 나타났다. 죽음과 관련해서는 죽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69.9%로 일본 대학생의 반응(68.3%)과 유사하다. 그러나 죽음 관련 내용에서는 주인공이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가 14사례(16.8%),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사고나 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언급은 9사례(10.8%), 다수의 죽음은 4사례였다. 특히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와 관련된 경

우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한국대학생의 경우 16.8%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권총이 보고되는 경우는 2사례(2.4%)로 일본대학생(6.7%)의 경우와 유사하며, 미국인의 반응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예시 1: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변화가 없고 똑같은 일상들이 지루하여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결심한다. 여자는 자살을 하려 주방에서 가위를 췌겨 손목을 그어 자살하려하지만 용기가 없어 죽지는 못하고 인생이 서글퍼 울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티내지도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대학생 32)

예시 2: 여자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자신을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차마 굶지 못하고 칼을 옆에 두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여 절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다. 주변사람에게 자신이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다 도움을 요청하여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대학생 54)

도판 4

한 여인이 남자를 붙들고 있으며 남자는 어디론가 빠져 나가려는 모습이다(Murray, 1943). 흔히 한 쌍의 남녀 사이에 갈등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난다(Stein, 1981).

주인공/주요 정서/결과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주로 언급되었고 둘의 관계는 부부, 연인, 불륜 등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의 경우 아내가 용서를 구함, 남편의

상황 회피, 부부싸움의 화해 시도, 애원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연인관계에서는 이별통보, 구매장면 등으로 나타나고, 때로 남성과 앞면에 나타난 여성(남편의 정부) 혹은 뒷면에 있는 반나체의 여성이 불륜관계로 지각되었다.

주요 정서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 6.0%(일본대학생 25.0%), 부정적 정서 94.0%(일본대학생 75.0%)로 한국대학생의 부정적 정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다. 결말에 있어서는 행복한 결말이 41.0%, 불행한 결말이 42.2%, 도덕적 결말이 9.6%를 차지하였다. 도판 4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관계, 주요 정서, 결말 등 빈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드러나지만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시 1: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바람둥이라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 순간 아내가 남편이 바람피우고 있던 방으로 들어오게 된다. 방에는 야한 그림들이 걸려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우 화난 채로 “어떻게 된 거야?”라고 소리친다. 남편은 그 자리를 피하려하고 아내는 붙잡는다. 남편은 뛰쳐나가고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운다. (대학생 36)

예시 2: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져서 남자는 전쟁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내는 남편이 전쟁에 참가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가지 말라고 한다. 남편은 아내와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아내를 설득한다. 결국 남편은 전쟁에 참가하고 아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편을 기다릴 것이다.(대학생 6)

예시 3: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고 여자는 용서를 구하고 있다. 남자는 배신감이 들고 여자는 당황해하면서도 미안해하고 있다. 결국 둘은 이혼하게 된다.(대학생 74)

도판 6BM

한 여인과 청년이 서 있으며 청년은 침울한 표정으로 밀을 내려다보고 있다 (Murray, 1943). 보통 모자관계로 아들이 어머니의 허락을 간청하는 내용이 흔히 나타나고 또는 아들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한다는 이야기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Stein, 1981).

주인공/주요 정서

전반적으로 나이든 여성과 청년은 모자관계로 나타나고, 남성이 어머니로부터 결혼승낙을 구함, 사업자금 요청, 젊은 남자가 나이든 여성에게 슬픈 소식을 전함 등의 내용이었다. 나이든 여성과 청년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로 모자관계(49사례; 59%)로 인식하고 있으나 (외) 할머니와 손자관계(6사례; 7.2%), 가정부와 집주인의 아들(6사례; 7.2%), 귀부인과 하인(5사례; 6%), 기타(17사례; 2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대학생의 90%는 모자관계로 인식하고 약 8%는 할머니와 손자 관계로 언급되는 등 한국대학생과 비슷하였으나 미국인은 모자관계만 언급되었고 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서성 측면에서는 한국대학생은 부정적 정서 95.2%(일본대학생은 80.0%), 긍정적 정서 4.8%(일본대학생 16.7%)로 한국대학생의 경우 부정적 정서의 보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다.

예시 1: 결혼 상대자와 함께 남자는 집에 인사드리러 간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여자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했다. 그래서 남자는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의 뜻을 한 번만 꺾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어머니는 몹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다' 결국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고 남자는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며 어머니께 효를 다 한다. (대학생 39)

예시 2: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들은 현장에서 죽고 친구만 살았다. 남자는 이 사실을 친구 어머니에게 알렸다. 현재 여자가 바라보는 곳엔 아들 시체가 있다. 여자는 허탈감과 슬픔에 빠져 있고, 남자는 송구스러움과 죄송한 마음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결국 여자는 충격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평생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이다. (대학생 50)

도판 7GF

한 여인이 책을 들고 앉아있고 곁에 있는 소녀는 무릎에 인형을 놓고 딴 곳을 쳐다보고 있다(Murray, 1943). 흔히 모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Stein, 1981).

주인공/주요 정서

주인공의 관계는 미국인의 경우 모녀관계로만 언급되고, 일본대학생의 경우 모녀관계(70%), 교사와 학생의 관계(30%)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의 경우는 모녀관계(64%), 가정교사와 학생(7.2%), 유모와 주인집 딸(24%), 기타 4

사례(5%) 순이었다. 주요 정서에서는 부정적 정서 67사례(81%), 긍정적 정서 10사례(12%), 중립적 정서는 6사례(7%)였다. 한편 미국인이나 일본대학생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성폭행 등으로 인한 어린 소녀의 원치 않는 임신 등(10.8%)의 내용이 나타났다.

예시 1: 유모가 주인집 어린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마치 늘 그랬던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여자아이는 인형을 손에 안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유모는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이는 재미가 없어서 창밖만 바라보며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생각뿐이다. 여자 아이는 책 내용이 끝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뛰어나갈 것이며, 유모는 걱정되어서 모자와 외투를 들고 따라 나갈 것이다.(대학생 2)

예시 2: 두 여자는 엄마와 딸이다. 딸의 손에는 어린 아이가 있다. 딸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고 엄마는 깜짝 놀랐다. 딸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낳았다. 그러나 엄마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여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딸은 자신이 키우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엄마에게 등을 돌린다. 엄마는 딸이 걱정될 뿐이다. 결국 어머니는 딸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이를 키우는 법부터 상세히 가르쳐준다. 현실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딸은 아이를 잘 키운다.(대학생 31)

도판 8BM

한 젊은 남자가 앞을 보고 있으며 한쪽에 엽총이 보이며 뒤에는 흐릿한 장면으로

수술과 같은 장면이 보인다(Murray, 1943). 흔히 젊은 소년이 주인공으로 직업적 야망이나 꿈이 나타나고, 공격성의 내용도 드러난다(Stein, 1981).

목표 성취/죽음

젊은 남성이 주인공으로 의사나 법의학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 열심히 노력하여 꿈을 이룬다는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나 도판의 주제 면에서는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술이나 불법시술(32.6%), 부검 및 생체실험(15.7%), 인신매매나 장기매매(2.4%), 등의 내용은 일본대학생이나 미국인의 경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시 1: 학생이 의사의 꿈을 갖고 있다.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그래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있다. 위험한 상태의 사람을 수술을 해서 살려내는 생각에 호뭇해하고 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좋은 성적으로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사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는 멋진 의사가 될 것이다.(대학생 2)

예시 2: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사람을 총으로 위협해서 불법 장기를 매매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장기를 매매하는 자들이 사람의 장기를 빼내고 있다. 장기가 빠진 사람은 죽을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대학생 21)

도판 10

한 젊은 여인이 남자에게 기대어 있다(Murray, 1943). 흔히 남녀관계의 문제로 이

별이나 재회 때의 심리적 동요나 위로 등의 이야기가 나타난다(Stein, 1981).

주요 정서/결과

두 남녀의 관계는 결혼한 커플 혹은 애정관계로 일본대학생, 미국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 남녀의 애정표현, 이별을 앞두고 서로 슬퍼하는 모습 등이었다. 주요 정서에서는 긍정적 정서 51%(일본대학생 38.3%), 부정적 정서 49%(일본대학생 61.7%)로 나타났고, 결말에 있어서는 행복한 결말 75%(일본대학생 60%), 불행한 결말 16%(일본대학생 11.7%), 극적인 결말 4.8%(일본대학생 20%) 등으로 나타나 유사한 양상이다.

예시 1: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하던 커플이 있었다. 그들은 결혼을 하였고 어느덧 중년의 부부가 되었다. 남자가 진단을 받았는데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 부부는 큰 충격에 빠지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 남자는 병원 치료를 받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한다. 여자는 슬프지만 그녀에게는 많은 추억이 있는 게 위안이 된다.(대학생 37)

예시 2: 조금 전 아들의 수술이 끝나고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부부가 안도하며 포옹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는 두렵고 무서워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주면서 안심시켜주고 있다. 앞으로 부부는 아들을 극진한 정성으로 보살피 아들은 완쾌를 하게 될 것이고,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대학생 38)

도판 11

높은 절벽 사이로 길이 나 있으며 길 가운데 희미한 장면이 보이며 왼편에는 새나 용의 머리와 같은 것이 바위로 된 벽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그림이다(Murray, 1943). 대체로 사람이나 동물이 공격을 받는 이야기나 탐험 및 호기심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Stein, 1981).

목표 성취/결과

전반적으로 용이 위협하고 습격으로 결국 죽음과 암담함, 황폐화된 마을에서 두려움 초조함 등의 부정적 정서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공이 바위로 된 벽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동물을 물리치거나 혹은 태풍,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길이 위험하지만 다시 복구된다는 내용, 산에 오르다가 험한 길을 만났지만 무사히 통과한다는 내용, 주인공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험한 여정을 하는 과정에서 임무를 완수한다는 내용 등이다.

주인공의 목표 성취에 있어서 일본대학생의 경우에는 목표 성취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대학생은 주인공의 목표 성취 18%, 목표성취와 관련 없는 내용이 78%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에서는 행복한 결말 47%(일본대학생 61.7%), 불행한 결말 20%(일본대학생 8.3%), 극적인 결말 16%(일본대학생 6.7%) 등으로 나타났다.

예시 1: 용사가 사악한 용을 물리치러 커다란 동굴에 들어가서 한 바탕 큰 전투를 하였다. 현재 사악한 용은 동굴 절벽의 벽에 박혀서 죽어있고 용이 박히면서 떨어지는 암석을 피해 용사는 몸을 웅크리고

있다. 앞으로 그 용사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 그 국가를 잘 이끌어가고 후세에 두고두고 전해지는 전설이 될 것이다.(대학생 38)

예시 2: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하층민들이 사는 동네고 사람들이 모두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사일과 전투기가 날아오고 그 마을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적막이 흐르는 상태가 되었다.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아주 극소수의 하층민만 남아 적막이 가득한 동네를 슬프게 지킬 것이다.(대학생 13)

도판 14

까만 배경 속에 열려진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다(Murray, 1943). 흔히 잠 안 오는 밤을 보낸다는 이야기와 자살, 욕구, 야망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Stein, 1981).

죽음/주요 정서/결과

내용에 있어서 한국대학생의 경우 자살 및 자살충동과 관련된 반응 14사례(16.8%), 죽음과 관련 없는 내용은 67사례(81%)로 일본대학생의 경우(각각 15.0%, 67%)와 비슷하다. 주인공의 주요 정서에 있어서도 부정적 정서 51%(일본대학생 57%), 긍정적 정서 37%(일본대학생 42%), 중립 1.2%(일본대학생 1.6%)로 유사하다. 한편 결과에서는 행복한 결말 30%(일본대학생 68.3%), 불행한 결말 15%(일본대학생 18%), 평범한 결말 39%(일본대학생 10%)로 한국대학생의 경우 행복한 결말은 상대적으로 낮고 평범한 결말이 높은 양상이다. 주인공의 목표 성취와 관련해서 일본대학생과 미국인들이 반응했던 자신의 미래, 꿈, 야망에

대한 생각이나 목표 성취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대학생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예시 1: 소년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 힘든 일을 겪어왔다. 그래서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다. 답답한 마음에 어두운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소년은 자살 생각을 한다.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참고 다시 부딪혀보기로 마음을 먹는다.(대학생 10)

예시 2: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루고 집에 돌아왔다. 남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업적, 명예, 부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고 자신이 혼자라 느끼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창문가에 서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울증에 시달린 남성은 결국 자신의 집 창문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게 된다.(대학생 34)

예시 3: 항상 어둡게 지내던 한 청년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 반성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연다. 인생에 도전을 품고 희망적으로 살 것이다.(대학생 7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TAT 반응내용의 주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TAT가 검사가 개발된 사회에 제한되기보다는 인간 경험의 내용을 밝혀줄 수 있는 투사법 검사의 하나인가를 알아보는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

다. 각 도판별로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판1은 피검자의 성취동기를 끌어내고 미래에 대한 야망과 꿈, 좌절과 실패 등이 투사된다고 보았다(Stein, 1981). 한국대학생의 반응 또한 유사한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TAT가 단지 문화적 맥락보다는 인간경험으로부터 공통주제를 이끌어낸다는 검사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도판의 장면과 인물이 70여 년 전에 고안된 것인데도 여전히 유사한 주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아 시간에 따른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프로토콜 예시처럼 주인공은 외부의 압력이 없이 스스로 성취 욕구를 드러냈지만, 일부는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에 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도판1은 첫 번째 TAT 도판으로서 피검자의 아동기 성취와 포부 등의 주제, 그리고 학습이나 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다루고 이러한 이슈들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urray의 원판 20장 도판 중 가장 중요한 도판으로 여겨지기도 하며(Bellak, 1993), 상단에 있어서는 아동기를 회상하고 아동기의 실제 경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Karon, 1982).

도판2는 가족카드(family card)라고도 불리며(Pica, Beere, Lovinger & Dush, 2001), 가족 간의 연대감, 상호작용 혹은 고립이나 단절 등이 나타나 보인다. 이 도판의 주제에서도 세 집단의 피검자 간 반응내용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가장 흔한 주제는 가족관계, 그리고 보통 주인공인 전경의 소녀의 가족의무와 개인적 목표 및 행복추구 간의 갈등이 나타나 보인다. 주인공은 보통 가족을 벗어나 성취를 추구할 것인가 혹은 가족 내에서 수용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대학생의 목표

성취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표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상자의 반 이상(53%)에 해당한다. 아울러 평범한 결말의 빈도(40%)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도판11에서 목표와 분명한 관련이 없음(78%) 그리고 평범한 결말(40%), 도판14에서는 평범한 결말과 결말의 언급 없음이 절반 이상(55%)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대학생의 언어표현은 흡사 단정적이고 결정적인 언어표현을 피하는 경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상의 한 예로 우리는 식당에서 때로 '아무거나 주세요.'라는 표현에서 엿보이듯이 자신의 결정을 미루고 상대방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로 볼 수 있는데, 오래전 Pye(1968)는 한국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기술하면서 아동이 윤리적 판단에 매우 민감하게 양육되고 자신의 행동을 안내할 단서로 사회적 상황을 살피도록 교육되며 주도성과 혁신에 대해서는 신중하도록 훈련된다고 한 바 있다. 물론 현재 한국의 대학생의 양육시기와는 다소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이러한 양상이 깃들여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연구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도판3BM의 경우 Stein(1981)은 이 도판이 우울, 거절 및 자살을 포함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이는 일본대학생의 경우에도 비극적인 죽음, 실망, 슬픔, 자살의 반응빈도가 높았다(Gray, 1998). 한편 도판의 권총은 외현적인 공격성의 표시이고, 권총을 지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권총을 장난감이나 공격적이지 않은 다른 것으로 언급하는 피검자는 자신의 공격성을 위장하려는 시도라고 보았다(Stein, 1981). 한국대학생의 경우 총기의 지각 빈도는 83사례 중 2사례(2.4%)로 매우 드문 편이다.

이는 총기의 사용에 관한 문화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엄격한 총기의 통제와 일반인의 총기소지를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총기는 법집행기관이나 군대 혹은 사냥 등의 특정 상황에서 허가에 의해서만 소지할 수 있는 이유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총기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화 차이로 인해 한국대학생의 주제에서는 총기의 지각이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주제의 해석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즉 한국피검자의 경우 반드시 공격성향의 위장이나 왜곡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총기와의 거리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로 이 도판은 현재 가장 압박감을 주는 피검자의 문제를 이끌어낸다고도 보았다(Karon, 1982). 본 연구의 프로토콜 예시에도 똑같은 일상의 지루함에 우울증을 겪고 자살을 결심한다는 내용이나 일상의 괴로움에 자살시도나 절망하는 모습 등이 드러나 보인다. 따라서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이 도판은 내담자의 현재 어려움에 관한 의미 있고 중요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도판4에서는 미국인의 TAT 주제(Stein, 1981)와 유사하게 대부분 도판 주인공들의 애정의 갈등 혹은 삼각관계의 주제가 나타났다. 아울러 도판6BM에서 도판의 인물은 흔히 모자관계로 나타나는데(Pam & Rivera, 1995; Stein, 1981), 한국대학생의 경우는 (외)할머니와 손자(7.2%), 귀부인과 하인(6.0%), 가정부와 집주인 아들(7.2%), 기타(20.5%; 직장상사의 하녀와 부하직원, 연상연하 커플, 어머니 친구 등)로 지각하였다. 한편 Stein의 연구에서는 할머니와 손자 관계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는 미국의 가족문화와 한국의 기존 대가족문화의 반

영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가족구조의 문화차이가 TAT의 지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내용에 있어서는 프로토콜의 예시처럼 어머니에게 결혼허락을 구하고 효를 다한다는 내용이나 해외에서 귀국해 장례를 치루는 내용 등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효(孝; filial piety)의 문화차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문화는 기성세대가 경험의 산물인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서 어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암암리에 요구하고 가정에서 훈육하는 모습을 대중매체나 일상에서 접하며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젊은 구성원들은 어른의 지혜에 따르고 그들의 충고를 중시하는 양상이 반응 내용에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지 고려해 볼 점은 주제의 하나인 주인공(표 1)에 있어서 한국대학생들의 주제는 인물의 관계성이 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상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지향적인 문화(한규석, 2016)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즉 집단주의 문화에서 일상의 주요 관심사는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타인의 평가나 사회규범 등의 사회적 요소가 개인의 중요한 관심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대인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은 사회적 단서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기대에 비추어 자신을 조정하거나 적응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창희, 한규석, 2007).

한편 몇몇 비교문화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인들은 개인보다는 집단지향적이고, 가족이나 국가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느끼며 부모나 형제를 향한 충성과 복종을 기본 덕목으로 하고 있다(Rogers & Izutsu, 1980). 이른 바 체면문화

권(face culture)에서 성장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수치심에 매우 민감하고, 특히 일본 같은 집단사회는 집단의 영향을 통해 순종을 교육하고 있다(Sue, 1997). 이렇게 보면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동북아시아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지녔다고 하겠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한다(허태균, 2017). 즉 한국사회는 일본과는 달리 조직보다는 관계가 중요한 관계주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는 조직과 회사 같은 거대시스템보다는 바로 앞과 옆의 가까운 동료와 상사와의 일대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로써 동일한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도 인물들의 지각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도판7GF는 흔히 모녀 카드라고 불리는데(Pam & Rivera, 1995; Stein, 1981), 한국대학생의 경우 모녀관계(64%), 가정교사와 학생의 관계(7.2%)로, 그리고 도판 6BM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당수(24.1%)가 유모와 주인집 딸의 관계로 지각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대학생들이 아마도 일주일에 4~5일 정도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책을 들고 있는 여성과 소녀가 가족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학업의 이미지 또한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 및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방학은 짧고 정규수업 이외에 학원이나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의 모습과 그리고 드라마에서 종종 묘사되는 상류층 가정의 주인집 딸과 유모의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주인공의 정서 상태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는데, 한국대학생은 부정적 정서(81%), 긍정적 정서(12%), 중립적 정서(7%)로 나타나 외로움, 고민 또는 불행 등

의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 소녀의 원치 않은 임신 등(11%)의 주제내용도 드러나고 있다.

도판8BM에서는 대체로 공격성이나 폭력 또는 의사가 되려는 소망에 집중되어 있다. 소년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여 외과전문의가 되었다는 내용, 소년이 총을 쏘 한 사람이 수술을 받고 있는 장면 등의 내용이다. 한편 장기매매나 생체실험, 불법수술 같은 내용도 나타나고 있다.

도판10은 남녀 간 애정이나 로맨틱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대학생의 경우 행복한 결말이 다소 높은 양상이다. 도판11에서는 주제의 다양성이 나타났는데, 목표성취 면에서 한국대학생은 분명한 목표 없음(78%)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높은 양상이다. 도판2에서 기술한 것에 덧붙여, 오래전 인류학적 고찰에서 한국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 부재, 직면의 회피 및 자신과 가족의 언어적 낮춤 등으로 언급되었다(Sook & Toupin, 1980). 현재에도 우리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자기주장, 남과의 경쟁, 자신의 성취에만 두드러지게 몰두하기보다는 상호협력과 양보 및 배려를 더 중요시하며, 도판에서 분명한 목표를 언급하지 않는 경향은 이러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추후 연구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도판14에서는 결과 면에서 긍정적 결말보다는 평범한 결말과 결과가 언급되지 않음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다(각각 38%, 17%).

이상을 요약하면, 일부 도판(3BM, 7GF)에서는 다소 다른 주제나 내용이 보이기도 하지만 두드러지거나 뚜렷한 반응의 차이는 없으므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임상실제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온 주제 중의 하나는 TAT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이다. Karon(1982)은 TAT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논하면서 검사를 사용하는 평가자의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중시하였다. 아울러 심리검사의 표준(standards)에서 언급한 바, “타당도는 다른 유형(type)의 타당도보다는 다른 방향(line)에서의 타당도증거를 말하며, 이는 검사점수를 특정한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AERA, 1999, P.5)”. 즉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는 검사 사용자의 판단이 필요하다(황순택, 김지혜, 박광배, 최진영, 홍상황, 2012). 또한 투사적 검사의 공통적인 결함은 기준자료와 관련된다. 적절한 기준이 없으면 임상가는 결과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임상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즉 투사검사 반응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이 피검자의 성격역동과 관련되기보다는 임상가의 이론적 지향, 선호하는 가설, 그리고 개인적인 독특한 부분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상가는 해당 검사에 대한 정상인들의 반응 특징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TA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과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에 관한 개인의 임상적 학문적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의 TAT에 나타나는 주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문화간 주제의 비교연구는 아니다. 다만 검사가 제작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현재 한국의 대학생의 TAT 반응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유사하게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와 정보 및 나타난 결과는 개략적인 주제 비교의 한 지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피검자들은 무선 표집이 아닌 편의 표집이며 모든 대학생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실시 장소 또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에서 수행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이야기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판 7GF는 미국피검자의 경우 두 인물의 관계를 대부분 모녀관계로 보는 한편 한국대학생의 경우는 교사-학생의 관계로 지각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났다. 피검자가 학생이고 검사실시가 학교에서 수행되어 이러한 상황요인이 반응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추후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자극의 제시를 파워포인트 자료로 구성하여 집단 실시방법을 사용하였다. TAT가 집단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고(Craemer, 1996; Teglas, 1993 등), 일상적인 구두의 개별검사와 도판을 스크린에 제시한 자기기록의 집단검사 간 연구(Clark, 1944; Eron & Ritter, 1951; Bellak & Abrams, 1997에서 재인용) 결과는 두 검사방법 간 TAT 주제내용의 질과 양은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다른 심리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AT에서도 무엇보다도 평가자와 피검자와의 rapport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검사에서만만큼 집단검사의 경우 rapport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원판과 파워포인트의 자극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추후 개별 도판과 개별 실시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문화는 그 문화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를 반영하고(Sue & Sue, 1990), 문화차이는 검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Lonner, 1985). 심리검사 도구로서 TAT가 백인의 사진 자극으로 구성된 미국과 유럽의 문화패턴에 기초하고 있으며 Rorschach검사만큼은 문화 공평검사는 아니다(Chowdbury, 1960). TAT 도판에 제시되는 인물들의 헤어스타일이나 의복도 현대의 이미지는 아니다. 연구자들의 임상경험에서도 도판의 인물이 외국영화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의 한 장면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등 피검자들은 종종 외국영화의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이 피검자들의 이야기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석에 있어서도 Rorschach 종합체계(Exner & Erdberg, 2005)와는 달리 TAT는 체계적이고 양적인 채점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아서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주제와 패턴을 살펴보면서 임상가의 주관적 해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논쟁점에도 불구하고 TAT는 성격과 정신병리의 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TAT를 활용한 연구의 시도이다. 학생들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국문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와 함께 유교는 현재까지도 한국의 나이 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이는데,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보다 서구화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적 시간적인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자아냈을 수 있다.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도판과 일부 대학생들의 반응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녀노소, 즉 성별 연령별 구분에 따라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TAT처럼 모든 집단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후 성별구

분 및 다양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함께 사례연구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몇몇 도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다른 심리검사와의 조합을 통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규정(한국심리학회, 2004; 제5장 평가 관련 윤리)에 따르면, 심리학자는 검사도구나 평가기법을 목적에 맞게 실시하고 해석하여야 하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가와 연구 도구로서 TAT의 생명력은 분명해 보이며, 심리진단 목록에 TAT가 활용되면서도 TAT의 해석에 관한 정보나 문헌은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가 추후 TAT 연구의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원이나 임상의 교육 및 수련과정에서 TAT의 이해와 해석을 위한 적절한 커리큘럼이나 세미나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권정혜 (2008). 한국임상심리학자들의 역할과 활동: 2007 조사보고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2), 571-579.

김금란 (2002). 심리테스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에 따른 코드분석: TAT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도연 (2002). A Study of language variation by gender in English and Korean.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순애 (1970). Thematic Apperception Test에 의한 성적 상하집단의 인성반응의

비교. 사대학보; 조선대학교 사대논문집.

김재환, 오상우, 홍창희, 김지혜, 황순택, 문혜신, 정승아, 이장한, 정은경 (2015). 임상심리검사의 이해. 학지사.

박영숙 (1998). 심리평가의 실제. 하나의학사.

신동균 (1989). 투사적 기법을 통한 성격구조 및 역동의 평가. *漢陽大學校 大學生活研究*: 7, 123-137.

이상로, 변창진, 김경린 (1981). TAT성격진단법. 중앙적성출판사.

한국심리학회 (2004). 심리학자 윤리규정. 서울.

한규석 (2016).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한기수 (1961). A new approach to the analysis of thematic apperception test. *最新醫學*, 4, 77-81.

허태균 (2017).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 어쩌다 한국인. 중앙books.

홍창희, 한규석 (2007). 한국정서표현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33-148.

황순택, 김지혜, 박광배, 최진영, 홍상황 (2012). 한국판 웨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 (K-WAIS-IV): 기술 및 해석요강. 한국심리주식회사.

황응연, 강광규 (1954).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에 의한 青年期學生의 一般의 特性과 Needs 그리고 Press에 關한 調查研究. *師大學報*;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Altman, D. G. (1991). *Practical statistics for medical research*. London: Chapman and Hall.

Alvarado, N. (1994). Empirical validity of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3, 59-79.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1999).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Author.
- Bellak, L. (1993).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and the Children's Apperception Test in clinical use*. Oxford, England: Grune & Stratton.
- Bellak, L., & Abrams, D. M. (1997).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the Children's Apperception Test, and the Senior Apperception Technique in clinical use*(6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Bogdan, R. C., & Biklen, S. K. (2003).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4th ed., pp. 110-120). New York, NY: Pearson Education group.
- Chowdbury, U. (1960). An Indian modification of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 245-263.
- Clark, A. (1944). A method of administering and evaluating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in group situations. *Genet. Psychol. Monogra.*, 30:3-55.
- Corey, G. (1991).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th e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Costantino, G., Dana, R. H., Malgady, R. G. (2007). *TEMAS(Tell-Me-A-Story) Assessment in multicultural societi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eVos, G. A., & Vaughn, C. A. (1992). The interpersonal self: A level of psycho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2*, 425-441.
- Eron, L. D., & Ritter, A. M. (1951). A comparison of two methods of administration of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5*:55-61.
- Exner, J. & Erdberg, P. (2005).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II(3rd ed.). Hoboken, NJ: Wiley & Sons.
- Frey, R. J. (2003). *Thematic Apperception Test*. Gale Encyclopedia of Mental Disorders. Encyclopedia.com.
- Groth-Marnat, G. (2009). *Handbook of Psychological Assessment*(5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Gray, J. L. (1998). *A Study of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TAT) with Japanese Subjects*. ISBN: 1-58112-042-7, Dissertation. com.
- Holmstrom, R. W., Silber, D. E., & Karp, S. A. (1990). Development of the Apperceptive Personality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1 & 2), 252-264.
- Hutcheon, D. S. (2010). Using TAT projective interpretation with a Korean client to influence disclosure in therapy.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13*(4), 12-23.
- Karon, B. (1982).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In A.I. Rabin (Ed.), *Assessment with projective techniques: A concise introduction* (pp. 85 - 120).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Lonner, W. J. (1985). Issues in testing and assessment in cross-cultural counseling. *Counseling Psychologist, 13*(4), 599-614.
- MacCluski, K. (2012). *Acquiring Counseling Skills*. [홍창희, 이수자, 정정화, 정민 역. (2012). 현대상담기술]. 서울: 학지사.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253.
- Miller, D. N. (2007). Projective technique and the school-based assessment of childhood in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Projective Psychology and Mental Health*, 14, 48-58.
- Moretti, R. J., & Rossini, E. D. (2004).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 In M. Hersen, M.J. Hilsenroth, & D. L. Segal (Ed.), *Comprehensive handbook of psychological assessment*(Vol. 2, pp. 356-371).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Morgan, C. D., & Murray, H. A. (1935). A method of investigating fantasies: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34, 289-306.
- Murray, H. A. (1943). *Thematic Apperception Test manua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arron, M. C. (2005). *Updating the TAT: A Photographic Revision of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DAI-B 66/01, Dissertations Abstract International.
- Pam, A. & Rivera, JA. (1995). Sexual Pathology and Dangerousness From a Thematic Apperception Test Protocol.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1), 72-77.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ition). Thousands Oaks, CA: Sage.
- Pica, M. Beere, D., Lovinger, S., & Dush, D. (2001). The Responses of Dissociative Patients on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7), 847-864.
- Pye, I. (1968). *The spirit of Chinese politics: A study of authority crisis in political development*.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Cambridge, Mass.
- Retif, A. I. (1987). Thematic Apperception Test across cultures: Tests of selection versus tests of inclusion.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17(2), 45-55.
- Roberts, G. E. (2006). *Roberts-2 Manual*.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Press.
- Schneidman, E. S. (1951). *Thematic test analysis*. New York: Grune & Stratton.
- Shentoub, V. (1973). Approaches projectives en France. *Revue de Psychologie Applique*, 26:359-400.
- Shentoub, V. (1981). Thematic Apperception Test de creativete. *Psychologie Francaise*, 26:66-70.
- Shentoub, V. (1990). *Manuel d'utilisation du T.A.T.* Paris: Dunod.
- Si Moussi, A. (1990). *Le Thematic Apperception Test aujourd'hui en algerie*. *Revue Officelle de la Societe Algerienne de Recherche en Psychologie*. Monograph. No. 1.
- Sook, E., & Toupin, W. A. (1980). Counseling Asians: Psychotherapy in the context of racism and Asian-American histo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0(1), 78-85.
- Stein, M. I. (1981).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An introductory manual for its clinical use with adults*(2nd ed.). Illinois: Charles C Thomas.
- Stein, M. I. (1999). *A personological approach to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In L. Gieser & M. I. Stein (Ed.), *Evocative images: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and the art of projection*(pp.125-13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rauss, A. & Corbin, J. (1994). *Grounded theory*:

- An overview. In N. Denzin & Y. Lincoln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273-285). Thousand Oaks, CA: Sage.
- Sue, S. (1997). Award for distinguished contribution to research in public policy. *American Psychologists*, 52, 351-353.
- Watkins, C. E., Campbell, V. L., Nieberding, R., & Hallmark, R. (1995). Contemporary practice of psychological assessment by clinical psycholog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 54-60.
- Zhang, T., Xu, S., Cai, Z., & Chen, Z., et al., (1993). Research on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Chinese version and its norm. *Acta Psychologica Sinica*, 25(3), 314-323.
- 원고접수일 : 2017. 04.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5. 24.
게재결정일 : 2017. 06. 14.

A study of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 in Korean college students

Hong, Chang-h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ark, Jin-hee

Jeju District Cou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mmon themes on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study included eighty-three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en of the original TAT cards (Murray, 1943) were used: 1, 2, 3BM, 4, 6BM, 7GF, 8BM, 10, 11, and 14. In addition Korean TAT themes were compared with Japanese TAT themes (Gray, 1998), and American TAT themes (Stein, 1981). At the stage of classification of all TAT narratives, the level of agreement was determined using a Cohen's kappa statistic. The results of the kappa statistics show relatively high levels of agreement ranging from 0.6 to 1.0. The authors qualitatively analyzed all narratives for each of the ten cards using thematic analysis (Patton, 2002), and narratives were then analyzed using five themes: hero, need for achievement, dominant emotional tone, outcome of the story and the incidence of death. For thematic analysis, common TAT themes for the Korean students were identified for all ten of the cards that were administer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me content were identified in two cards: 3BM, 7GF. These findings show the adaptability of the TAT as a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 for Korean students, and open the door for future studies. Also,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are suggested.

Key words : *psychological test, TAT, thematic analysis, the level of agreement*